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5호 [루게 제25288호] 주체105(2016)년 5월 2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황병사동지, 박영식동지, 오수용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연구자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소금공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경제적가치가 큰 지하초염수자원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현실에 도입할데 대한 전무적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피륙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인민군대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난해 귀성제염소에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올해 3월초부터 현재까지 150여정보의 소금밭에서 7,000여t의 소금을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많은 량의 소금을 생산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고, 밤새 해당한 보고자료들을 보고 또 보다가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소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을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에 섰다고 하시면서 사회에서는 몇년전부터 시작하였지만 아직 특별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는데 인민군대에서 짧은 기간에

소문없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당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것을 체질화하고있는 인민군대가 역시 다르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과 바다물에 의한 종전의 소금생산방법을 대비해보시면서 새로운 소금생산방법의 경제적효과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다물에 소금을 얻어내자면 저류지, 예비증발지, 증발지, 결정지를 거쳐야 하지만 지하초염수는 바다물보다 농도가 몇배나

높은것으로 하여 증발지와 결정지만 거쳐도 소금을 생산할수 있으므로 지금 리용하고있는 소금밭면적의 절반정도만 소금생산에 리용하고 나머지면적에서는 바다가양식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면 종전에 비해 소금밭면적은 물론 생산주기를 대폭 줄일수 있고 생산원가를 낮출수 있을뿐만아니라 정보당 생산량을 몇배로 장성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귀중한 자원에 의거하여 큰 실리를 얻는 새로운 소금생산방법이야말로 소금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은 바다물로 생산한 소금에 비하여 시율이 적으므로 쓴맛이 거의 없고 맛이 좋으며 칼리움과 요드함유량이 많고 중금속함유량이 적으므로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식료품생산,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생산에서 리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서해안일대에는 경제적가치가 큰 지하초염수자원이 풍부하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면 해당 부문에서 탐사를 힘있게 벌려 유망한 지하초염수 매장지들을 찾아내며 각지 제염소들에서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금더미에 다가가시여 몸소 소금맛을 보아주시며 맛이 참 좋다고, 부드럽고 쓴맛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이곳은 보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규모있게 쌓여있는 소금더미들을 한한 미소속에 보고 또 보시며 정말 흐뭇하다고, 자신에게는 소금더미들이 백금산으로 보인다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애로와 난관도 많았지만 인민군대는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소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당군의 본태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정책관철은 인민군대처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건말건 스스로 일감을 맡아하고 땀겨나서 똬약발과 세찬 바람속에서도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감으로써 우리

나라 소금공업력사에 하나의 분수령을 마련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군인들에게 대단히 수고들이 많았으며 높이 평가했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은 시작에 불과하지

만 전망이 확고하며 소금문제를 풀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에서 소금산, 백금산을 높이 쌓아가는것과 함께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금생산은 식량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마음먹고 달려붙어 투쟁한다면 능히 자급자족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소금생산부문에서는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소금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정치지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를 성실성으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간호원 김영순은 당의 뜻을 받들고 봉사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건설자들에 대한 전성치료전투를 힘있게 벌리면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에 앞장섰으며 응급정맥회차 로동자 희유성도 환공의 난을 앞당기는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평양연극영화대학 로동자 박설경은 가정부인이지만 70일전투 전기간 봉사장에서 야간지리직종로대원으로서 총성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어려지에 힘입는 지원사업을 벌여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다. 제신성 산하단위 기술준비원 김진희는 야간지리직종로대원으로서 적극 참가하였으며 봉사에 필요한 기공구들과 후방물자를 마련해줌으로써 건설자들이 총성의 70일전투를 위훈으로 빛내이도록 떠밀어주었다. 속도전정년동격대 참모 김진주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뉘지는 전투현장에서 불굴대원들을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들의 생활에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왔다. 김일성경기장을 제육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변모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을 만드는데 있어 빛나고 일념이고 중앙은행 부원 박철준, 대성은행 부원 박주혁은 많은 공과와 자애, 후방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공사장을 찾아가 철야근을 다그치는 건설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안은 재취공업성 산하단위 부원 김주향의 성의있는 지원도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단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결사판탈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될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당으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으며 온 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당대회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완성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과업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조선에서의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을 드팀없이 제승되고있다. 제 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양골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 영웅청년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평양 5월 23일 조선중앙통신】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지어주는 심장마다에 새겨진 온 나라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이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대비안, 대혁신의 만리마속도장요준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으로 익세계 자라난 수백만 청년전위들은 당중앙이 정한 총공격전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과 본태를 남김없이 펼쳐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 총발동시키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이 23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봉제 동지와 청년동맹일꾼들, 근로청년, 학생청년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

를 표시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장요의 불길놀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를 전후남 청년총맹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낭독하였다. 이어 중앙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문철, 김중대전기기관차합기업소 로동자 최경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리지환이 결의문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신것은 최선의 현출위인에 대한 찬탄 군민의 고결한 총성과 절대적인 신뢰심의 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단결대계를 담보하는 혁명적대경사이라고 하면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돌파구를 면

에서 열어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것입니다.》 토론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과업판별에 총대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의 믿을만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에게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며 수령님들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문명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청년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한

목표를 쟁취하는에서 조선청년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칠것이라고 말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차와 낫을 억세게 들이잡고 당의 병진로선을 더 철저히, 줄기차게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켜 우리 나라의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고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주체의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 천하제일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이게 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에서 지지점만 대주면 과학기술의 지평대로 지구도 들고 우주도 끌어당길수 있다는 배짱을 가지고 최첨단물류의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주체의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 천하제일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이게 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청년전위들의 결기모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의 트랙에 운명의 피를 이어놓고 우리 당의 끝없는 공격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 연속공격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열혈청년들의 철석의 신념과 영웅적기개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